

지역 소식 통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모집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군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조건은 부안인의 특색있고 독창적인 체험 부스 운영이 가능한 개인, 동호회, 사회단체 등 부안군내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종문 위원장은 “제12회 부안마실축제를 다채롭게 만들어 줄 체험 부스 모집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저소득 등 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정읍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대학 입학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정 대학 입학생과 청소년 한부모 본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다른 대학 입학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정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의 교육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해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산물 정읍지황 소비 활성화

4월 11일까지 한 달간 숙지황 구매 지원 프로모션 진행

정읍시가 지역 특산물인 정읍지황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간 숙지황 구매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역 내 생화차집 등 숙지황을 사용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숙지황 구매 금액의 20%를 환급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영체에는 숙지황 가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정읍 숙지황으로 달인 질 높은 생화차를 제공해 정읍지황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읍은 전국적으로도 생화차의 명소로 유명하다. 이는 생화차의 핵심 원료인 지황의 주산지가 정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읍시에는 47개의 생화차



집이 있으며 ‘생화차거리’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잡았다.

정읍지황은 품질과 역사적 가치에서도 뛰어나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에게 진상될 만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한때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

도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읍시는 1992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황 주산단지로서 지정됐으며 2015년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 정읍지황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다.

현재 시는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황 재배면적 확대와 기술 향상을 위해 영농교육, 현장 지도,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 지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성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위해 진성길19 일원

부안군은 지난 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안을 진성길19 일원의 상권을 진성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진성 골목형상점가는 군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부안을 봉덕리 880번지 주변 골목을 구역으로 해 식당, 미용실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돼 있는 구역의 상인회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윤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 상권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지속 발전 가능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맛집 지정업소 모집... 다양한 혜택 제공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정읍 맛집 신청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인정 형태의 업소(단, 정읍 본점만 가능) △최근 2년 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맛집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위생관리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식재료

△음식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맛집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 대상 ‘숨어있는 찐 맛집을 찾아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상위 10개 업소는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맛집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업소는 △맛집 지정패 수어 △외식업 영업주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지원 △SNS 홍보 △상·하수도로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과 선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63-539-6902)로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사회복지관, 위기 여성 주거 지원

정읍시사회복지관(관장 정관일)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 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사회복지관을 포함해 선내며중합사회복지관, 군산나문중합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참여해 진행된다.

위기 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은 가정 폭력, 학대, 이혼 등의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혼 진행 중이거나 이혼 후 1년 이내 경제적 문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여성 △가족의 폭력·학대로 인해 분리가 필요한 여성 △스트레스·데이트 폭력·디지털 범죄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 여성 등

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 최대 38만원(아동 동반 시 48만원)까지의 월세 지원(최대 3개월,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기초서비스 지원(가구당 월 2만원, 아동 동반 시 10만원 추가 지원) △사례관리 운영비(1사례당 1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개인 신청이 불가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이 거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읍시사회복지관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을 관할하며 해당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관일 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위기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등 봄철 산불방지 총력

고창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14개 읍·면 대책본부 설치 · 비상근무 체제 돌입

고창군이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등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5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산불재난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군청 관계부서와 소방, 경찰 군부대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고창군은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14개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비

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9명을 비롯해 산불감시원 56명을 배치했다. 대원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계도, 산불진화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8294ha)과 등산로 폐쇄구역(60km)을 지정해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 산불의 초기 대응을 위해 흥덕면 헬기계류장에 산불진화 임차 헬기를 전진 배치했다.

그 밖에도 고창군은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지속 추진중이다.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산불대응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산불은 소중한 산림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군민들께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다짐

고창군, 간부공무원 워크숍

민선 8기 고창군이 지역의 정책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상하농원에서 고창군청 간부공무원 144명이 참여한 ‘행정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렸다.

군은 올해 군정슬로건인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모색과 디지털역량(AI 및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방안) 강화에 중점을 뒀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담당한 김용성 교수(충남대 기술교육학과)는



“AI 기술의 활용 능력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달라지고, 이는 곧 지역간 국가간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가 지역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광호 감사(희망교육개발원), 육현수 부이사관(기획재정부) 등의 강연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군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부 공무원 브레인스토밍도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르면 5월께 대선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접쳐지는 등 정치·경제적 격변기에 간부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직 변화를 선도할 행정 리더들의 인식 제고와 혁신적 사고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